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2022년, 시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은 고양에 참 특별한 해입니다.
과거로부터는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된 지 30주년이 되고,
미래를 향해서는 특례시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30년은 한 사람 일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긴 세월입니다.
30년 전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외모, 건강 등 거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인구 24만 명에 불과했던 한적한 마을은
인구 109만 명의 대도시가 되었고,
전국 네 곳뿐인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양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큰 도시입니다.
베드타운이었던 고양에 활력을 불어넣을
굵직한 자족사업들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큰 도시가 아닌 좋은 도시입니다.
큰 도시에 맞는 더 큰 권리와 혜택이 시민에게 고루 돌아갈 때
우리는 “고양시민이라서 참 좋다”고 비로소 느끼고,
우리가 밭 딛는 고양시도 비로소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고양시민이고, 우리 스스로가 고양시입니다.
2022년, 시민이 더 행복한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희망의 한 해를 그려내겠습니다.

2022년 새해 아침
고양시장 올림



존경하는 109만 고양시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민 모두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 맞이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임인년(壬寅年)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로
용맹과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2022년 새해는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이 코로나19를 물리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 제8대 고양시의회는 지난 4년간 시정 질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022년 고양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서 ‘자치분권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감사청구 제도 등 주민중심의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시민들이 정치를 통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09만 고양시민 여러분!

고양시의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부족한 점을 살피고 현장의 소리를 더욱
경청하며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새해 아침
고양시의회 의장 올림

